

LG정밀, 社名 개정후 경영혁신 본격화

LG 정밀(대표 孫基洛)은 그동안 사용해오던 社名 금성정밀을 새롭게 바꾸고, 「활기찬 정밀, 하나된 정밀, 최고의 정밀」을 만들기 위한 <VIP2000> 프로그램을 전개하는 등 제2의 경영혁신을 본격화하고 있다.

LG정밀은 LG그룹의 명칭과 심볼마크 등 CI(Corporate Identity)가 전면 개정됨에 따라 개방화, 세계화, 정보화 등 무한경쟁시대에 보다 진취적이고 역동적인 미래지향적 기업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임직원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상품의 특성 및 고객 인지도를 고려하여 회사명칭을 “LG정밀”로 개정했다.

또한 비전 달성을 위한 전제조건인 실체변혁에 이르기 위해서는 전략혁신, 조직혁신, 사고·행동 혁신의 3요소가 유기적으로 조화되어야 한다는 기본 전제하에 “자부심(Pride)과 활력(Vitality)에 넘치는 일체화된 조직(Identity)”을 만들기 위해 <VIP2000>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VIP는 Pride(자부심), Vitality(활력), Identity(일체화된 조직)의 머릿글자로, ‘활기’차고, ‘하나’되며, ‘최고’인 회사를 만들자는 혁신활동의 하나이다.

<VIP2000> 프로그램은 작년 한해동안 비전 체험 프로젝트를 통해 이룩한 ‘나의 변화’를 ‘팀·조직의



LG정밀주식회사

변화’로 연결시키고, 조직스킬, 고객만족, 사원만족, 리더십, CARE제도정비, 공장 및 연구소 혁신 활동 등 여러 혁신활동을 연결하는 가교로 추진된다.

이에따라 경영이념/행동규범 실천 프로그램을 비롯, CIP 구체화 작업, 감사하는 마음 캠페인, 회사비전 수정, 가족교육 프로그램 사업, 업무, 품질, 사람, 조직 전반에 걸친 質의 혁신 등 일련의 혁신 활동이 연중 지속 전개된다.

LG정밀은 새로운 이름과 함께 <VIP2000>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일류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야심 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동명중공업, 구동제어/시뮬레이터 세미나 개최

— 産·學·研 협력 및 民·軍 共用기술 개발의 가시성과

동명중공업(대표 崔奎哲)은 '94 구동제어/시뮬레이터 세미나를 국방과학연구소와 自社 기술연구소 공동주관으로 창원본사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에서 총 1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시종일관 참석자들의 질문과 토론이 진지하게 이어졌다.

산업계를 대표해서는 동명중공업(주)에서 3편, 대우중공업(주)에서 2편, 현대정공(주)에서 1편이, 학계를 대표해서는 서울대 이교일교수 연구팀, 부산대 이만형교수 연구팀, KAIST 윤명중교수 연구팀이 각각 1편씩 발표하였으며, 연구계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안태영실장팀 외 5편이 발표되었다.

구동제어 기술은 방위산업의 기반기술일 뿐만 아니라, 전기, 전자, 유공압 기술의 상호보완적인 경쟁개발로 더욱 정교해지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체계와 제품성능이 향상되고 있다.

시뮬레이터 또한 다양한 운동가능성으로 항공기, 선박, 자동차 분야의 운동재현기로서 그 기능이 더욱 향상되고 있으며, 첨단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인 가상현실과 결부될 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기술이다.

이번 세미나의 의의는 국방기술 연구개발활동에서 정보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공유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명실상부한 産·學·研의 협력으로 자원의 투자 이용률을 높였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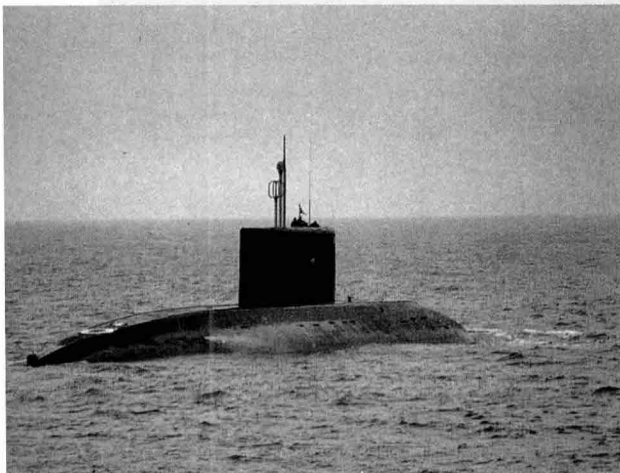
또한 국방·민간 공용기술의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소에서 국가의 중요한 원천기술이라 할수 있는 구동제어/시뮬레이터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民·軍 공용기술 발전에 적극 동참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가진 모임에서 세미나 참석자들은 産·學·研 연계의 기술교류 중요성을 다시한번 상호 공감하고, 이러한 자리가 해를 거듭하며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진정한 産·學·研 연구의 토론훈이 되기를 희망하였다.

중국 첨단 장비로 연합기동 함대 창설 계획 - 핵잠수함, 중·장거리 폭격기, 공중조기경보기로 무장

중국이 해군력을 증강하여 「원양해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공격용 핵잠수함을 비롯해 중·장거리 폭격기와 전자전용 전투기 및 공중조기경보기 등 첨단장비가 포함된 연합기동함대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고 홍콩의 <연합보> 등이 보도했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러시아로부터 KIL0급 대형 공격용 잠수함(사진) 3척을 구입한 바 있다.

연합기동함대에는 첨단장비외에도 일반잠수함과 미사일 구축함, 원양보급함, 공중급유기 및 해병대 병력도 포함된 군단급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은 이외에도 현재 주력전투기인 F-8 시리즈를 대신할 차세대 주력전투기를 독자개발해 지난해 10월 시험 비행을 실시했으며 2000년경 실전 배치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